



contents

- 58 **New Target 2030 기획특집 5** AI 디지털선교, 로드맵과 액션플랜
- 63 **선교쟁점 및 이슈분석** 하나님의 선교, 지속성을 지향한다
- 69 **교계쟁점 및 이슈분석** 기독교인들이여! 문화예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라 (2)
- 73 **2025 태국 특집 - 해외포럼1**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 76 **2025 태국 특집 - 해외포럼2** 비 서구 중심의 선교(Polycentric Mission)와 세계 선교의 미래
- 82 **2025 태국 특집 - 해외포럼3** 라オス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 85 **2025 태국 특집 - 해외포럼4** 사랑으로 행하는 눈높이 선교
- 90 **2025 태국 특집 - 해외포럼5** 한국교회 선교 동향과 이주민 선교에 관한 고찰

AI 디지털선교, 로드맵과 액션플랜

글 정용구 선교사

/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 & 협동총무

AI, 디지털 선교 카탈리스트, 본지 편집위원

1. 배경설명

제8차 NCOWE “디지털세계와 선교 트랙”을 위한 리더들의 모임이 시작된 2023년 1월 26일부터, NCOWE를 거치고¹, 후속모임, IT Mission Conference² (2023년 12월 1~2일)를 통해 “디지털 선교 로드맵”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Action Plan을 위하여 ‘KWMA 디지털 선교 실행위원회’를 2024년 2월 22일에 구성하였다.³ 세워진 ‘디지털 선교로드맵’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다양한 모임에서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만들어 가기 위한 협업의장을 가져왔다.

2. 목적

이번에 발표된 KWMA NEW TARGET 2030 ‘AI, 디지털 선교 로드맵 & Action Plan’은 한국선교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및 세계선교 현장에서 긴밀하게 ‘디지털 선교’의 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세계선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디지털을 활용하여 선교의장을 만들어 나가고, 아날로 그 시대의 선교에서 디지털 시대의 선교로의 협력 및 발전의장을 만들어 나가고, 특별히 디지털 선교를 위한 미래선교 인력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3. 목표

(1) ‘디지털 선교 로드맵’을 구축하여 구체적인 Action Plan을 실제적으로 ‘인식’, ‘개발’ 및 ‘활용’ 및 안착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디지털 선교를 위한 각 그룹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교계 및 선교계는 세상의 디지털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디지털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활용’에 중점을 두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공감하였다. 특별히 디지털 선교 사역자들의 경우 ‘개발’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동반되는 경우이기에 무리한 투자나 개발보다는 현재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잘 ‘인식’하고, ‘활용’하는데 집중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1 “제8차 NCOWE 디지털 세계와 선교 발제 및 종합발표회 자료보기” 「KWMA」 (2023.6.18. 입력)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SqbcP_ofchs2LjCQNmRU3JifzxqlqgfJ

2 손동준, “조연결시대, 선교도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 「국민일보」 (2023.11.19.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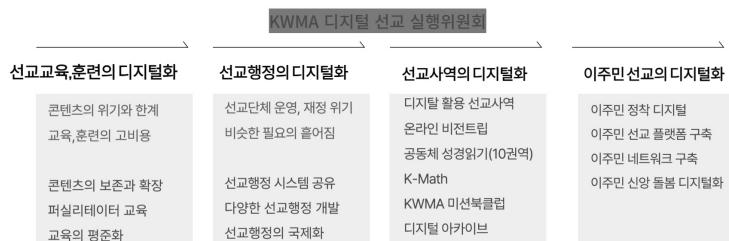
3 양예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선교전략 필요, 디지털 선교로드맵 나왔다” 「Daily GOOD NEWS」 (2024.02.22. 입력)

(2) 제8차 NCOWE에서 강조한 현지교단 및 교회와의 동반자 선교를 위해 ‘디지털 선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협력한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적극 협력을 위해서도 아날로그적 방법을 고수하여, 제한된 공간과 시간속에서의 만남의 한계를 극복하여 디지털 기기나 사역 노하우들을 함께 공유함으로 다양한 선교의 도전들을 극복하고,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 좀 더 발빠르게 소통함으로서 미래선교 현장의 이슈들을 지금보다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디지털 선교 로드맵 & 액션플랜

주요 키워드 : 디지털 선교인식, 디지털 활용 선교, 디지털 선교인력 개발



디지털 선교 콘서트 : 분기별, 디지털 관련 종합 정보 공유와 활용 사례

(3) 주요 목표로는 국,内外의 선교현장의 디지털 선교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① 선교교육 및 훈련의 디지털화

건강한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사 훈련과 교육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선교사 파송 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면, 지금은 선교사의 재교육, 선교사의 역량강화 훈련, 선교사 은퇴 후의 교육, 선교지의 변화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훈련, 디지털 선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필요가 늘어나고 있다.⁴

특별히 선교교육과 훈련은 선교사만이 아니라 파송하는 선교기관, 후원교회 등에도 많은 필요가 요청이 되지만, 훈련과 교육의 수효가 늘어난다고 모든 교육과 훈련을 만들어 나가기는 많은 재정 및 시간과 인력이 동반 되어지고, 이를 위한 선교 교육과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온라인 상의 수 많은 선교훈련 및 교육 콘텐츠와 신규 콘텐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선교훈련과 교육의 주체 및 피교육생들은 무엇을 보아야 할지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영향력 있고, 소중한 선교 훈련 및 교육 콘텐츠를 재활용하고, 이를 선교교육 현장에 잘 접목할 수 있는 교육 퍼실리레이터 매뉴얼과 인력을 개발한다면, 선교훈련과 교육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난 제8차 NCOWE에서 발견된 세계선교 현장의 현지리더십의 절대적 필요 요청은 선교지의 훈련 및 교육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선교훈련과 교육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많은 교육 선교사업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진다.

⁴ 지용근, “2024년 해외선교 실태 조사 발표” 「독회데이터연구소」 (2024.07.25.) 2 손동준, “초연결시대, 선교도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 「국민일보」 (2023.11.19. 입력)

② 선교행정의 디지털화

현재 한국에는 많은 선교단체 및 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선교사와 관련한 중요 선교행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쉽게도 재정적 위기와 업무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교사들이 요청하는 멤버케어를 위한 기본적인 안식관, 병원, 위기관리, 행정 서류 등의 발급이 아날로그적 상황으로 되어지다 보니 정보도 제한적이고, 적은 인력구조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다. 선교사의 숫자가 많은 적든,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의 요청 범위가 다양하기에 한계가 많다.⁵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디지털 멤버케어 토탈 시스템’들을 개발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면, 많은 인력난 해소나 멤버케어 서비스 향상에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진다. 특별히 한국 선교계가 개발하여 사용한 선교행정의 디지털화를 통·번역 언어기반으로 구축하여 세계선교계와 공유한다면, 다양한 미래선교 행정의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진다. 이를 통해 ‘선교행정의 국제화와 표준화’를 통해 미래선교 현장에서 각 국가들이 긴밀한 선교행정의 공유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구촌은 ‘교환학생’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 선교현장에는 ‘교환선교사’와 같은 필요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이주민 사역 현장에 해외에서 오는 사역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하지만 아직 이들이 파악도 되어지지 않고 있고, 홀로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디지털 선교행정, 선교행정의 국제화와 표준화’를 통해서 더욱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 역시 다른 나라의 중요 선교기관이나 사역에 동참을 한다면, 이를 위한 디지털 선교 시스템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다. 디지털의 핵심이 ‘정보의 공유’인데, 선교행정을 한국 안에서도 쉽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한국선교가 세계 교회에 작은 부분이라고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행정의 디지털화’, ‘선교행정의 국제화와 표준화’로 한 발자국 더욱 다가가기를 바라는 목표를 가졌다.

③ 선교사역의 디지털화

이번 ‘디지털 선교’를 논의하는 자리에는 많은 현장 선교사들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특별히 비공개국가 및 이슬람지역에서 디지털을 이용한 다양한 사례들과 열매들을 보면서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별히 다음세대들의 경우 ‘퇴근 후 선교사’⁶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SNS 등을 통한 현지와의 선교를 위한 소통이 늘어나고 있고, 단기팀으로 봉사를 다녀 온 뒤에 맺는 디지털 네트워크는 현지인들과의 접촉에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는 최근 선교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진다.

코로나 기간에 발전된 줌(Zoom)을 통한 다양한 소그룹 모임, 온라인 단기팀 사역, 온라인 기반의 성경읽기, CCM 등의 온라인 사용 확산은 디지털 선교사역의 현장에서 더욱 다양하게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는 기본적인 사역 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학교교육, 직업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추세이기에 이를 통한 사역 아이템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이단들도 ‘디지털 선교’에 매우 많은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황이기에 선교계가 먼저 인공지능이나 변

5 정용구, “선교사 멤버케어의 행정과 실제”, 「한국선교신학회 제4차 정기학술대회 주제 발제」 (2023. 08.17.)

6 한현구, “MZ세대는 퇴근 후 온라인에서 선교사가 된다”, 「기독교연합신문-아이굿뉴스」 (2023.11.05. 입력)

화하는 디지털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는 과거 방송인재를 전략적으로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평을 듣는다. 그 결과 기독교영상 콘텐츠의 발전이 일반 방송에 많이 밀린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계는 전략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잘 양성하도록 선교 사역 가운데 다양한 디지털 선교 인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④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의 디지털화

'이주민 선교' 이슈는 향후 한국선교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이주민 사역자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이주민들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한계와 더불어 한국정착이라는 과제를 빠른 시간에 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시간까지 디지털 선교 리더십들은 이주민 사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디지털의 접목을 통해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정착 정보, 의료정보, 지역 정보 등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신앙적인 디지털화를 구현하게 될 경우 오게 될 선교적 가능성을 디지털 선교 리더십과 이주민 선교 리더십과 심도 깊게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현재 250만명의 이주민들이 통합 정보 시스템이 없이 개별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기에, 이를 디지털을 통한 플랫폼 구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4) 'AI, 디지털 선교'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인 'AI, 디지털 선교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Action Plan을 이끌어 갈 디지털 선교역량을 가진 리더와 일꾼들을 발굴하여 적극 사역에 참여하도록 한다.

- ① KWMA '디지털 선교실행위원회' 구축
- ② 각 영역 및 이슈별 디지털 선교사역자 구축
- ③ KWMA 회원단체 내에 디지털 선교 담당자 구축 및 비전과 사역 공유
- ④ 각 국가별 디지털 선교 인력 개발 및 네트워크

(5) AI, 디지털 선교 14개 활성 프로젝트

- ① 선교교육 & 훈련
- ② 선교행정 디지털화
- ③ PRS(공동체성경읽기) & JSU (KWMA 미션 북클럽)
- ④ 디지털 단기선교
- ⑤ 디지털 선교 아카이브
- ⑥ 디지털 시대의 영성 훈련과 개발
- ⑦ 디지털 K-Math Mission
- ⑧ 디지털 원격의료상담
- ⑨ 디지털 홍보 & 저변확대 & 활용
- ⑩ 디지털 BAM
- ⑪ 디지털 미션펀드
- ⑫ 인공지능과 선교영역 활용 사례집
- ⑬ 미래선교 개발 R&D (미래디지털선교연구소)
- ⑭ 방송을 통한 디지털 선교 활성화

4. 주요사역 활성화 프로그램 – 디지털 선교 콘서트

분기별로 디지털 미션 포럼 스타일의 콘서트를 개최하여, 해당 시점 디지털 선교 최신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사역 및 발전 사항들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디지털 선교 사역 관심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디지털 선교 역량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 내용

- ① 디지털 선교 사례 발표
- ② 선교에 유용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발표
- ③ 선교에 유용한 앱 소개
- ④ 세상 속 디지털 : 최신 디지털 트랜드 및 정보 소개
- ⑤ 인공지능과 문화 : 음악 미술 등의 접목 및 발표회
- ⑥ 디지털 사용 따라잡기 워샵
- ⑦ 특별 게스트 초청을 통한 토크쇼
- ⑧ 이주민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참여
- ⑨ 디지털 선교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접목 및 연구
- ⑩ 디지털 콘서트를 통한 라이브 아카이브화

5. 기대효과⁷

- ① 한국선교계는 디지털 선교를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긴밀한 동역을 통한 선교행정의 디지털화와 선교행정의 국제화를 통해 구체적인 미래선교의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 ② 복음을 들어가기 어려운 미전도종족 및 비공개 국가에서의 디지털 선교사례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다양한 선교콘텐츠들을 선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많은 사례화 매뉴얼을 세계교회에 공유한다.
- ③ 디지털을 통한 선교훈련과 교육을 통해 과거의 콘텐츠만이 아니라, 현재 및 미래의 다양한 선교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세계교회가 보다 긴밀하게 건강한 선교사, 건강한 선교로 나아가도록 실제적인 훈련과 교육 콘텐츠를 세계교회와 공유한다.
- ④ 디지털 선교 콘서트를 통한 다양한 선교콘텐츠의 개발과 접목을 통해 디지털 선교 인력과 인프라와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시켰고, 이를 통해 선교 현지의 일선선교사, 개교회에서도 선교사역의 활성화와 동력화를 위한 귀한 밀거름과 발판을 마련하여 준다.
- ⑤ 디지털 선교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한국선교의 귀중한 유산과 자료들을 다음세대들과 세계교회에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다른 국가의 선교정보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연합을 통해 미래선교의 긴밀한 지원들을 아카이브화 하는데 기여한다.

7 정용구, “디지털 선교 위한 정책적 집중 필요한 시점”, 「기독공보」(2024.12.19. 입력)
(2024년 12월특집 – 선교환경 변화와 한국교회 4. 디지털 선교)